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 8 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12월 12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태종수동지, 노봉철동지,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 홍승무동지, 홍영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주체적국방공업발전과 사회주의강국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제 8차 군수공업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

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저저올라 하늘을 진그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방건설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특기할 국방공업전사들의 대회 합에 참석하시어 주체적국방공업발전 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뛰어 뛰어나야 할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조국청사에 특기할 민족사적대사변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온 성원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부문,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과 국방공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에 헌신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 백철불굴의 투쟁기풍으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근거리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병기창을 질풍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결성판결을 위한 영웅적대진군의 전열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한 축하연회 마련

주체조선의 자주적공업과 불계의 위업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한 특대사변으로 온 나라에 크나큰 민족적광기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하여 12월 12일 축하연회를 마련하였다.

목관관과 인민문화궁전 연회장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대희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당중앙위원회의 특별초청으로 제 8차 군수공업대회에 참가하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최상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이들이 뜻깊은 연회까지 초대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계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태종수동지,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 홍승무동지, 홍영철동지가 연회들에 참가하였다.

연회들에서는 최봉채동지, 태종수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업에 따라 국가핵무력관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힘을 탄생시키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우리 당의 붉은 국방과학전사들, 결사관철의 영광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온 나라가 《3.18혁명》, 《7.4혁명》과 7.28의 기적적승리를 경축하여 축하의 인사를 보낼 때조차 우리의 영웅한 국방과학전사들은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신들메를 더 조여 메고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심장의 박동에 발걸음을 맞추며 다음 결사전을 위한 험난한 행군길을 멈춤없이 달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인민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당의 병진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반미대결전의 분수령을 마련하는데 공헌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11월대사변》에는 우리 조국의 원년년미패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열과 정을 광그리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만단사언이 뜨겁게 어려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핵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감히 엄두조차 낼수 없는 비상한 속도로 우리의 붉은 령장검이 완벽하게 버려지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씨위협이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민족사적대승리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성-15》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단행된 력사의 그날 풍소 현지에서 우리 로켓진무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환풍에 열싸안아주시었다고 말하였다.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했 제 8차 군수공업대회에 특별자격으로 참가하도록 하시고 수심리연도에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도록 하여주시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온정의 세계는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고 격정을 미치었다.

진정 혁명전사들을 자신처럼 믿으시고 언제나 시련도 기쁨도 함께 하시며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각별한 온정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는 국방과학전사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부만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였다.